

안성판방각본

초기 방각 상황 재고

‘동문이방각소’ 판 한글 고소설 판본들

김한영

안성참빛아카이브 대표, 미학 전공

hahsoh@empal.com

- I. 머리말: 문제의 제기
- II. 안성지역의 방각소와 방각본 인출 현황
- III. 안성지역 방각소들의 상호 명명 방식과 ‘안성동문이’
- IV. “東門里 朴星七書店의 朴星七” 증언 검토
- V. 동문마을 방각활동 기록·증언의 부재 문제
- VI. 맺음말

I. 머리말: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 방각본 3대 판본으로 일컬어지는 안성판방각본(安城板坊刻本)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는 1960-1970년대의 김동욱(金東旭, 1922-1990)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이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방각본 연구가 하나의 흐름을 이룬 2000년대에 들어서였는데, 고전문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¹⁾를 일궈냈다.

이에 힘입어 현 시점에서 방각본 안성판본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가 어느 정도 축적된 결과도 얻었다. 이전 시기 안성판본에 대한 연구가 미비했던 사정을 고려하면 이들의 선행연구는 획기적 성과로 주목하기에 족하다. 반면 그 접근이 제한적이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기존의 연구가 주로 문학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탓에 고전소설 판본들만 고찰 대상으로 삼거나, 실물이 현존하는 판본들 위주로 안성판본 개관의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에 머문 까닭이다. 이는 연구의 역량에서 비롯된 문제라기보다 관련문헌·사료·기록·실물판본·구술증언 등 개관의 초기 상황을 실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다.

선행연구의 값진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밝혀져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판본의 현황을 소개하는 총론의 차원을 넘어 세부적인 논제에 주목하는 각론의 연구도 필요하다.²⁾ ‘안성동문이신판’을 개관한 동문이방 각소의 위치와 방각의 주체를 고증하여 밝히는 일도 안성판본 인출의 초기 상황을 고찰할 때 필요한 일 중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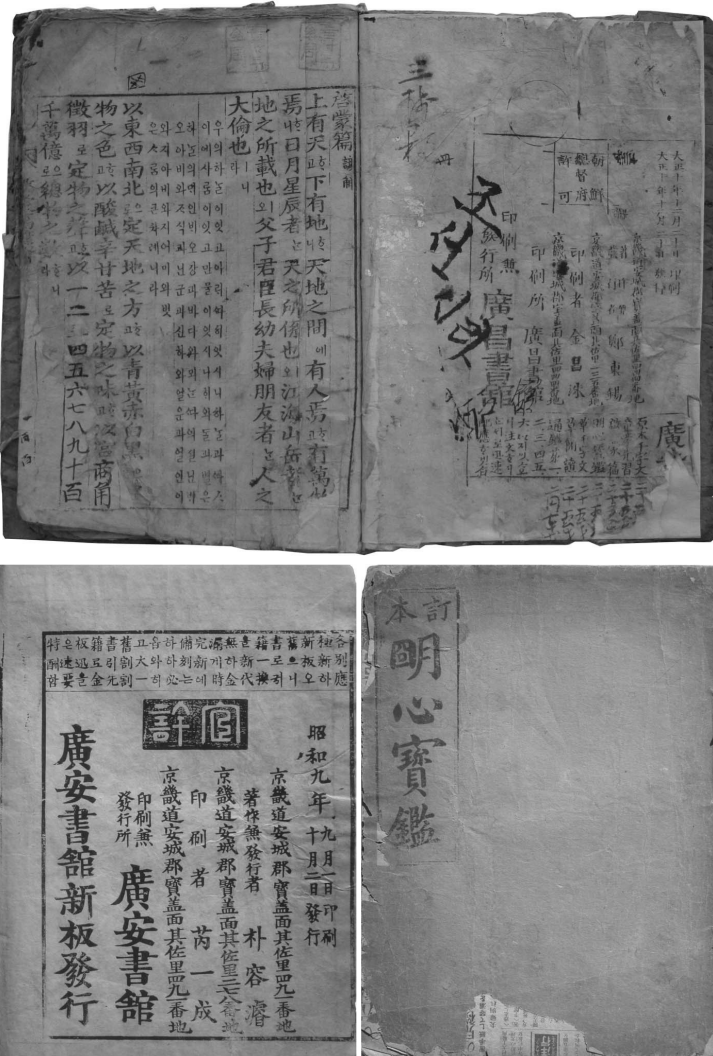
1909년 출판법의 발효 이후 북촌서포와 박성칠서점에서 간행한 판본들(표3, 표4)에 첨부된 판권지에는 예외 없이 박성칠(朴星七, 1856-1922)이 발행자로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방각소의 방각활동을 박성칠이 주도했다는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8종 7판본의 고소설들

1) 안성판방각본을 비중 있는 논제로 삼거나 경판 완판과 비교해서 논의한 자료로는 김동욱(1970, 1973), 이창현(2000ab), 부길만(200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05), 이정원(2005, 2006), 최호석(2006, 2010, 2012), 김한영(2012, 2013abc)을 참조하라.

2) 경판과의 관련 속에서 행해진 것이긴 하나 각자체나 간기를 주제로 한 이창현의 연구(2005, 2006)와 방각본 출판을 경제성의 관점에서, 그리고 안성판본의 서울 진출을 고찰한 최호석의 연구(2004, 2012)는 이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을 찍어낸 동문지방각소 판본들(표2)의 발행주체가 누구였는지, 그가 박성칠이었는지, 전대에 활동했던 제3의 방각인(들)이었는지는 아직 구명된 바 없다. 이를 밝히는 것이 긴요한 까닭은 이것이 안성판방각본의 초기 인출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안성판방각본 전체의 방각 현황(표1-표9)을 살펴본 후,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박성칠의 방각활동, '안성동문이 신판'을 찍어낸 동문지방각소의 위치와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재고하고자



도1, 도2- 최근 새롭게 발굴된 광창서관과 광안서관(b)에서 각각 방각한 『계몽편언해』(위)와 『명심보감 초』(아래)

한다. 이를 통해 동문지방각소가 기좌리에 입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따라서 박성철이 이 판본들의 개판에 직접 참여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논증해 보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는 초창기 안성판방각본의 방각 상황을 전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매우 시사성 있는 논제의 하나인바, 이 글이 초기 안성판방각본 인출의 전통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안성지역의 방각소와 방각본 인출 현황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안성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방각본으로 박아낸 서책의 종류는 전통사회의 일상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던 필수 실용서인 책력(冊曆: 曆書)이다. 필자는 역서가 안성 지방관으로 안성 기좌리(其佐里)에서 방각된 시기를 『서운관지(書雲觀誌)』(1818) 등의 기록을 상고할 때 개략적으로 18세기 중후반 무렵이었던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³⁾ 아울러 안성지방관으로 인출한 역서 또한 방각본의 개념에 부합하다는 점도 앞선 연구에서 논증한 바다.

안성판 역서의 방각이 고전소설을 중심으로 한 안성판방각본의 본격적인 등장을 위한 예비적 과정이었다고 할 때, 문제로 되는 것은 『소대성전』 등 무간기본들⁴⁾을 간인한 가칭 ‘안성방각소’⁵⁾(표1)는 물론이고, 『제마무

3) 안성판 역서의 인출에 대해서는 김한영(2013bc, 88-129쪽)을 참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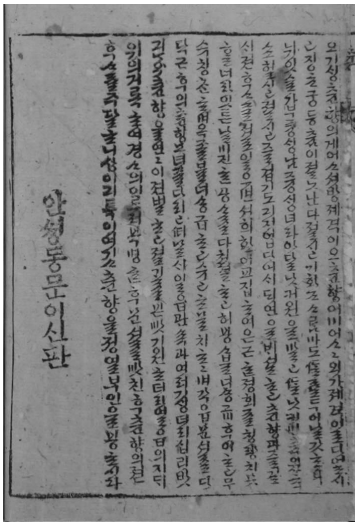
4) 텍스트의 변경과정이나 판각 추정 시기, 장수의 축약과 같은 특징, 그리고 선행연구자들의 감식조건 등을 바탕으로 할 때, 무간기본 고전소설 중 안성판임이 분명해 보이는 것들은 도요분고(東洋文庫) 소장 『소대성전』, 3권본 / 2권본 『수호지』, 「내훈」과 「내훈제사」가 합철된 대영박물관 소장 28장본 『진대방전』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창현(2000ab)을 참조하라.

5) 이창현(2000b)은 이 방각소(들)의 선재(先在)를 확인하면서(그는 이를 ‘가칭 朴屋七家’로 지칭했다) 그것이 복수였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지만 단수였는지 복수였는지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127쪽, et al.). 현재 안성판본의 연구자들은 ‘안성동문이신판’을 방각한 동문지방각소에 앞서 가칭 ‘안성방각소(들)’가 선재했음을 흔쾌히 인정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이창현과 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그러하다. 그래서 상당수 연구자들에게는 동문지방각소가 안성지역에서 활동한 최초의 방각소였고, ‘동문이라는 간기의 표기를 따라 안성판방각본이 동문마을에 그 원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필자의 앞선 연구(2013bc)가 조선 중후기 이래 기좌리·불현리의 한지 생산을 배경으로 한 역서(曆書)의 지속적인 인쇄·판매 활동으로부터 무간기본 고전소설의 방각이 자연스럽게 유래했을 가능성을 논증한 만큼, 추후 가칭 ‘안성방각소(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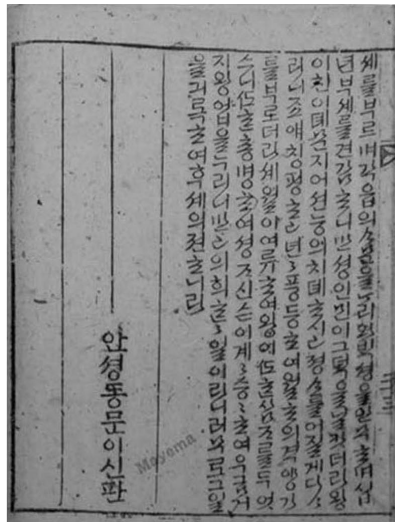
전』 등 ‘안성동문이신편’을 개판한 동문지방각소(東門—坊刻所)⁶⁾(표2)의 실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실물 근거를 통해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안성판방각본, 특히 고소설 판본들의 본격적 개판에서 동문지방각소가 중추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까닭에 안성지역에서 판각·인출한 소설류 판본들의 기원을 헤아리는 일 또한 이 방각소가 처음 등장한 시점과 환경 환경을 추적하는 데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⁷⁾

이 문제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개진하기에 앞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 또는 발견된 판본들⁸⁾을 포함하여 과거 안성지역에서 생산한 안성판



도3-‘안성동문이신편’ 『춘향전』 권미



도4-‘안성동문이신편’ 『홍길동전』 권미

- 6) 동문지방각소는 1880년 어름에 안성지역에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방각소다. 이는 간기의 표기를 바탕으로 임의로 지칭한 명칭일 뿐 간소의 공식적인 고유명칭은 아니다.
- 7) 경판 고소설 방각본과의 선행-후행 관계에 대한 분석과 고증을 통해 이창현이 그 가능성을 언급한 바와 같이, 필자는 이보다 더 앞선 19세기 이전 시기부터 역서를 인쇄·판매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발원하여 나중(19세기 중반 이후)에는 무간기본 고소설들을 방각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칭 ‘안성방각소(들)’ 또한 안성지역에서 활동한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실물자료를 통해 실체가 확인된 것은 아니기에 가칭 ‘안성방각소(들)’의 문제는 여기서 논외로 한다.
- 8) 최근 필자에 의해 이곳에서 간행된 『啓蒙篇諺解』(안성시립보개도서관 소장, 도1)와 『明心寶鑑 抄』(참빛아카이브 소장, 도2)가 발견됨으로써 그 실체가 드러난 표5의 廣昌書館과 표4의 廣安書館(b)을 말한다. 이 두 판본은 각각 판권지에 광고지면을 담고 있는데 광창서관은 표5의 ‘방각책명’에 보이는 서책의 서목을 소개한 반면, 광안서관(b)는 “各種 新舊書籍 無漏完備”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서명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들 방각소 및 서지에 대한 해제는 김한영(2013c), 273-287쪽을 참조하라.

방각본의 전체 현황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각 시기별·방각소별로 분류하여 나타내면 표1-표9와 같으며, 이것이 현재까지 파악된 안성지역의 방각소·방각 시기·방각인·방각판본의 전체적 개요라 할 수 있다.

표1-가칭 안성방각소(들)

활동 시기/ 방각 시기	방각소 소재지	저작 및 발행자	인쇄자	판종 수	방각 책명
18세기 중후반?~ 19세기 후반?	안성시 보개면 기좌리	미상	미상	?	曆書(時憲書)? 四書三經?
1850-1860년경?					소대성전? 진대방전(28장본 / 내훈 내훈제사 합철)? 장경전? 수호지(2권본/권본)?

표2-가칭 동문이방각소(東門—坊刻所)

활동 시기/ 방각 시기	방각소 소재지	저작 및 발행자	인쇄자	판종 수	방각 책명
1880년대?	안성시 보개면 기좌리? (보개면 동문마을?)	미상(박성철?)	미상	7	적성의전 양풍운전 제마무전/회심곡(합철) 홍길동전A(23장본) 조웅전A(20장본) 삼국지(권지삼) 춘향전

표3-북촌서포(北村書舖)

활동 시기/ 방각 시기	방각소 소재지	저작 및 발행자	인쇄자	판종 수	방각 책명
		주소			
1912년 (明治 45)	안성시 보개면 기좌리	박성칠 (朴星七)	안만호 (安萬浩)	6	少徵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춘향전 조웅전B(20장본)** 심청전** 삼국지(권지삼)** 장풍운전**
		안성시 보개면 기좌리*			

* 판권지에 나타난 주소지는 “安城郡 其佐面 本里”이나 이는 현재의 보개면 기좌리와 동일지역임.

** 실물은 보이지 않으나 1917년 박성철서점이 간행한 동일본의 판권지 기록에 근거한 것임.

9) 표1-표9에 보이는 안성판방각본 판본 전체의 일반 현황 중 소설류의 경우는 1960년대 전후 김동욱의 조사에 뿌리를 둔 것으로 이창현(1999)이 그 대강을 밝혀 보인 것이며, 비소설류는 최호석·이정원(2005, 2006)이 실태 조사를 통해 파악한 판본들에 기초하여 주 8)에서 말한 2개의 방각소 발굴(2012)로 인한 새로운 판본들이 더해져 얻어진 총괄자료다. 『춘향전』 외에 실물이 보이지 않는 북촌서포 소설 판본들의 경우, 필자가 직접 박성철서점 판 소설 판본들의 판권지를 조사하여 얻은 결과지만, 앞서 최호석 등도 이미 분석해낸 바 있다는 점을 부기해둔다.

표4-박성칠서점(朴星七書店)

활동 시기/ 방각 시기	방각소 소재지	저작 및 발행자	인쇄자	판종 수	방각 책명
		주소			
1917년(大正 6)	안성시 보개면 기좌리 461	박성칠(朴星七)	예일성(芮一成)	12	啓蒙篇諺解 童蒙初讀 춘향전 삼국지(권지삼) 양풍운전 장풍운전 조웅전B(20장본) 심청전 임장군전 진대방전(16장본) 홍길동전B(19장본)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안성시 보개면 기좌리 461	안성시 보개면 기좌리 593		

표5-광창서관(廣昌書館)

활동 시기/ 방각 시기	방각소 소재지	저작 및 발행자	인쇄자	판종 수	방각 책명*
		주소			
1921년 (大正 10)	안성시 보개면 기좌리 444	정동석(鄭東錫)	김창수(金昌洙)	7-8	啓蒙篇諺解 原本千字文 童蒙先習 啓蒙篇 明心寶鑑 (草)千字文 草簡牘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안성시 보개면 기좌리 444	안성시 보개면 기좌리 135		

* 위의 서목은 유일한 현존본인 계몽편언해의 판권지 광고에 준거한 것임.

표6-창신서관(昌新書館)

활동 시기/ 방각 시기	방각소 소재지	저작자	발행자	인쇄자	판종 수	방각 책명
		주소				
1923년 (大正 12)	안성시 보개면 기좌리 491	박수홍 (朴壽弘)	정은채 (鄭殷采)	유덕오 (兪德五)	5	啓蒙篇諺解 千字文 幼蒙先習 古今歷代標題註釋十九史略通攷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안성시 보개면 기좌리 491	경성부 서사헌정 48	안성시 보개면 기좌리 491		

표7-신안서림(新安書林)

활동 시기/ 방각 시기	방각소 소재지	저작 및 발행자	인쇄자	판종 수	방각 책명
		주소			
1923년 (大正 12)	안성시 보개면 국천리 235	장이만(張二萬)	이명수(李明洙)	6	童蒙初習 啓蒙篇諺解 千字文 草簡牘(上下) 明心寶鑑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경성부 견지동 80	안성시 보개면 기좌리 515		

표8-광안서관(廣安書館) a

활동 시기/ 방각 시기	방각소 소재지	저작 및 발행자	인쇄자	판종 수	방각 책명
		주소			
1926 (大正 15)	안성시 보개면	이정순(李正淳)	이광석(李光錫)	6	千字文A(32장본, 판각인 있음) 千字文B(32장본, 판각인 없음) 幼蒙先習 童蒙必習 啓蒙篇諺解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기좌리 495	안성시 보개면 기좌리 495	안성시 보개면 기좌리 452		

표9-광안서관(廣安書館) b

활동 시기/ 방각 시기	방각소 소재지	저작 및 발행자	인쇄자	판종 수	방각 책명
		주소			
1934 (昭和 9)	안성시 보개면 기좌리 491	박용준(朴容濬)	예일성(芮一成)	10여 종?	明心寶鑑 抄 외 다수
		안성시 보개면 기좌리 491	안성시 보개면 기좌리 278		

이 글의 논의의 중심은 표2의 붉은 선 표시 안에 보이는 판본들, 즉 8종 7판본¹⁰⁾의 동문이방각소 판본들이다. 이것들은 일찍이 김동욱이 안성의 현지를 찾아 안성판본들을 수집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관심과 주목을 받아왔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10) 『제마무전』과 『회심곡』이 합철되어 1책을 이룬 것 외에는 모두 1종의 소설작품을 20장 안팎 분량의 단권으로 제책한 것들이다. 불교가사인 『회심곡』은 전체 분량이 겨우 4장에 지나지 않는 까닭에 단권으로 유통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위의 판본 중 가장 분량이 적은 『제마무전』(16장)에 합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모두 한글본 고소설이라는 점
 둘째, 실물이 모두 현존하고 있다는 점
 셋째, 예외 없이 ‘안성동문이신판’¹¹⁾이라는 간기가 나타난다는 점¹²⁾
 넷째, 18세기 중후반 무렵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안성판방각본 인출사(印出史)에서 그 전체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다섯째, 선행연구에서 안성판본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이 판본들이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해왔다는 점

여섯째, 무엇보다도 안성판본의 개판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박성철의 방각활동을 헤아려 보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이를 염두에 둘 때, 이 방각소의 성격을 밝히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요긴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하겠다.

‘안성동문이신판’이라는 간기 이외에는 그 실체를 파악할 기록이 전무한 탓에, 이 방각소의 활동 시기나 발행 주체는 물론 설치 위치 또한 단정적으로 말할 근거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판본들의 유래지가 안성시 보개면 동문마을¹³⁾이었던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선행연구들¹⁴⁾이 ‘안성’과 ‘동문’이라는 지명 표기를 축어적으로 새겨 예단한 까닭이다.

이전 시기 안성지역에서 활동한 ‘안성방각소’(표1)가 역서와 경서(經書)를 인쇄하면서 간기가 없는 고소설 방각본들¹⁵⁾을 산발적으로 각판·인출

11) 安城이 분명한 ‘안성’과, 新版 또는 新板으로 읽어야 할 ‘신판’의 한자 표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이나, ‘동문’을 ‘東門’으로 표기하는 것이 정확한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여기서는 ‘東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일단 ‘東門’으로 읽기로 한다.

12) 출판법 발효(1909) 이전 시기에 개판된 방각본들에 흔히 사용된 간기는 출판법 이후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했던 관권지와 달리 대부분 관권자·발행자·각수·인쇄자 등 개판에 참여한 방각인들의 이름은 물론, 발행자·인쇄자의 거주지와 발행소의 구체적인 주소를 표시하지 않았다.

13) 동문마을은 송동, 평촌과 함께 동신리에 속한 행정리명이다. 이 글에서는 ‘안성동문이신판’의 ‘동문’이, 김동욱 등이 말한 ‘東門里’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이 마을을 ‘동문마을’로 표기한다.

14) 안성판본에 대한 최초의 연구자인 김동욱(1970)부터 가장 최근인 2012년 『안성시지』의 「방각본」 항목에 이르기까지 ‘안성동문이신판’을 고찰하면서 안성 이외의 지역, 특히 서울에서 활동한 방각소들의 상호 명명 방식—즉, 간기에 간행지(坊: 마을, 여염) 또는 관권자·발행자의 이름을 표시한 관행—을 좇아 도식적 틀에 맞춰 접근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예외 없이 ‘안성동문이신판’의 ‘동문’이 동문마을을 의미한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 왔다.

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안성판 고전소설들의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생산·유통은 동문지방각소의 방각활동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방각소의 설치 위치를 구명하면 ‘안성동문이신판’의 생산 주체와 시기, 개판의 배경 등 안성판방각본의 초기 방각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관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동문이’가 동문마을인지, 아니면 기좌리와 같은 다른 마을을 지칭한 것인지의 여부를 되짚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연구자들이 동문지방각소의 방각활동을 박성칠이 참여 또는 주도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¹⁶⁾ 이를 확정하는 데 주저한 것은 간기 형식에 의거해 지명 표기로 간주한 ‘동문이’라는 표현이 걸림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III. 안성지역 방각소들의 상호 명명 방식과 ‘안성동문이’

주로 전통문학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초창기 안성판방각본의 연구에서 주목한 안성의 방각소는 한글본 고전소설들을 방각했던 동문지방각소, 북촌서포, 박성칠서점이다. 이 중 북촌서포에서 찍은 방각본들 가운데 실물이 현전하는 것은 『춘향전』, 『소미가숙점교부음통감절요』 두 종뿐이다. 『춘향전』은 박성칠서점에서 동일판목¹⁷⁾을 이용하여 후쇄한 간본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행연구자들은 북촌서포의 존재는 물론이고 이

15) 표1에 보이는 『소대성전』, 『진대방전』(28장본), 『수호지』, 『장경전』을 말한다.

16) 이창현이 대표적인 경우다. 그는 앞의 글(2000b)에서 “박성칠서점은 별도의 독립된 방각활동을 전개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방각소인 안성 동문리의 방각활동을 계승하여 나타난”(132쪽) 방각소이며, ‘안성동문이신판’을 박아낸 동문지방각소를 박성칠이 운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149쪽). 이정원(2006)도 박성칠의 생몰년(1856-1922)을 고려하면 동문지방각소를 직접 운영했을 가능성이 있다(239쪽)고 간주했다. 이와 달리 최호석(2010)은 안성판본의 간행 현황과 경제성의 측면, 판목 조성방식의 문제를 들어 박성칠과 동문지방각소는 무관하다면서 박성칠이 동문이신판의 개판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77-79쪽).

17) 반면,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는 발행자가 박성칠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북촌서포와 박성칠서점이 서로 다른 판목을 사용하여 인쇄(印行)했다. 북촌서포의 1912년과 박성칠서점의 1917년은 시차가 크지 않고, 판권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저작 겸 발행인이 박성칠이라는 동일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판목을 조성해야 하는 이 책을 박성칠서점에서 새로운 판목으로 찍은 이유는 알 수 없다. 1917년 박성칠서점의 판권지에 보이는 발행일 및 판차를 근거로 하면, 북촌서포에서는 『조웅전』, 『심청전』, 『삼국지』, 『장풍운전』, 그리고 위에서 말한 『춘향전』을 포함해 최소 5종의 고소설을 방각했던 것으로 보인다(표3 참조).



도5-동문이방각소 판 방각본의 간기들. 1과 2는 『춘향전』, 3은 『양풍운전』, 4는 『삼국지(권지삼)』, 5는 『홍길동전』, 6은 『제마무전』

상호명이 뜻하는 바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1917년 이전에 방각된 소설류 안성판본과 관련하여 ‘동문이’와 ‘박성칠’만 도드라져 보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동문이방각소’가 실제로 동문마을에 설치·운영되었던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안성지역의 방각소들 가운데 판권지 기록을 통해 최초로 구체적인 소재지가 드러나는 북촌서포의 상호 명명 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성군(安城郡) 기좌면(其佐面) 본리(本里)¹⁸⁾에 소재했던 북촌서포의 ‘북촌(北村)’은 1914년 이전의 ‘기좌면 본리’ 또는 그 이후의 ‘보개면 기좌리’의 고유지명이 아니다. 여기서 ‘북촌’이 기좌리를 나타내고자 한 이름이었다고 한다면 이는 안성 읍치를 기점으로 삼은 방위에 따른 단순한 일반명칭, 곧 ‘안성 읍치의 북쪽에 위치한 마을’을 의미할 뿐이다.

북촌서포의 ‘북촌’이 조선 중후기에 한때 기좌리가 속했던 방면(坊面)인 북좌(北佐) / 북좌촌(北佐村)¹⁹⁾의 지명을 차용한 것일 수도 있지만, 북촌서

18) 현재 안성시 보개면 기좌리의 1914년 이전 이름이다. 현 행정구역상 안성시 보개면에 속한 기좌리는 안성시내와 인접한 마을로 인구 600여 명에 지나지 않는 작은 마을이다. 조선 중기 이래 유서 깊은 한지의 산지로, 대대로 제지와 인쇄출판을 전문으로 수행해 온 마을이다.

19) 조선 중후기 이래 기좌리가 속했던 방면(坊面)의 이름이다. 『同治十年辛未十二月日安城郡邑誌』, 坊里 條; 『大東地志』 「安城郡」 篇 坊面 條 참조. 영조연간에는 한때 지금의 기좌리인 ‘夔佐村里’가 栗洞面에 속한 적도 있다(『安城郡邑誌』 奎17369).

포가 활동한 시점이 일제강점기 초기인 1912년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안성지역에서는 애초부터 서사(書肆)의 상호를 지을 때 ‘안성’, ‘보개’와 같은 지명은 물론이고, 본리(本里)·기좌(其佐) / 기좌촌(夔佐村)²⁰⁾·적재(積財)울 / 장재(藏財)울²¹⁾과 같이 당대에 통용된 마을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른 지역의 방각소들은 판각·인쇄한 마을 이름을 상호로 사용한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안성판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지닌 채 전개된 경판본을 찍은 서울지역의 경우, ‘由洞新板·紅樹洞重刊·南谷新刊·丁亥季春布洞·경성개간·歲庚子孟冬京畿開板’ 등의 간기 표기에서 보듯이, 거개가 방각한 지역이나 마을의 실제 지명을 간소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안성의 경우, 임의의 명칭에 지나지 않는 ‘안성방각소’와 ‘동문지방각소’를 제외하고, 방각소의 공식명칭과 소재지가 밝혀진 나머지 7개 방각소의 이름 — 북촌서포(北村書鋪)·박성칠서점(朴星七書店)·광창서관(廣昌書館)·신안서림(新安書林)·창신서관(昌新書館)·광안서관(廣安書館) a·광안서관(廣安書館) b — 에는 지역 또는 동리의 공식명을 사용한 예가 단 한 곳도 없다. 안성의 방각소들은 판각·발행한 지역의 이름을 상호로 삼은 서울 소재 방각소들의 일반적인 관행 또는 방식을 처음부터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²²⁾

그렇다면 북촌서포보다 앞선 시기에 활동한 것이 분명한 ‘안성동문인신판’의 ‘동문인’은 실제로 당시 마을의 공식 명칭이었고, 이 명칭이

20) 영조연간에서 조선 후기에 사용된 기좌리의 다른 이름이다. 『戶口總數』 第二冊, 京畿道 安城 條; 『輿地圖書』 卷四, 「京畿道補遺」 安城郡 坊里 條; 『同治十年辛未十二月日安城郡邑誌』, 坊里 條 참조.

21) 전해오는 말로는 적재울, 장재울은 이 마을의 토산인 종이와 금(金)이 마을에 많은 이문을 가져와 재물을 쌓아두는 곳이라 해서 붙여진 별칭이라고 한다. ‘울’은 곧 골(谷), 즉 전통취락을 뜻한다.

22) ‘서사의 상호=마을 이름’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 심지어 안성에 소재했던 방각소와 판본의 전체 유파를 어느 정도 조망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 결과가 축적된 지금도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최근에 안성시가 지역의 한 민간단체에 위탁해 펴낸 지역자료집에는 창신서관과 신안서림에서 ‘창신’과 ‘신안’을 마을 이름으로 간주하여, 안성에서 방각활동을 수행한 마을 가운데 창신동(안성지역에는 창신동이 없다. 아마도 창전동과 신흥동을 합해 부른 듯하다)과 보개면 신안리가 포함된다고 했지만(『안성시지』 2권, 758쪽), 이는 현재까지 발굴된 실물자료로 볼 때 전혀 사실과 다르다.

지금의 동문마을을 지칭한 것이었을까? 조선 후기의 표기 형태인 ‘안성’이 곧 안성(安城)이기 때문에, 이 판본들이 안성지역에서 인쇄되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동문이방각소’의 소재지가 현재의 동문마을이 아니라, 기좌리 또는 그 인접 장소였을 가능성은 없는 걸까? 다시 말해, ‘동문’이라는 지명이 특정 마을을 지칭한 이름이 아니라, 현재의 동문마을을 포함하여 안성 읍치의 동북에 포진한 여러 마을을 싸잡아 일컬은 명칭이었을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의 행정구역은 특히 인접한 방면·방리와 같이 협소한 지역 간에는 경계가 불분명한데, 일제강점기 초기 이전에는 근대적 측량에 의한 지번이 획정되지 않은 탓에 정확성을 결여한 경우가 많다.²³⁾ 게다가 과거의 지지나 고지도들을 살펴보면 거리 인식과 공간 감각이 오늘날의 그것과 사뭇 다른 측면도 빈번히 드러난다.

도6은 일제강점기 안성 행정지도의 일부분이다. 실측지도는 아니지만 조선 후기에 제작된 고지도와 달리 비교적 세부적인 내용이 충실하게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평리와 오두리 사이에 ‘文’²⁴⁾이 보이고, 안성이 ‘畵’²⁵⁾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30년대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안성천을 따라 이어진 안성선²⁶⁾ 철로 북쪽에 기좌리와 곡천리, 불현리가 위치해 있고, 남쪽에는 동문마을(동문리)이 속한 동신리가 자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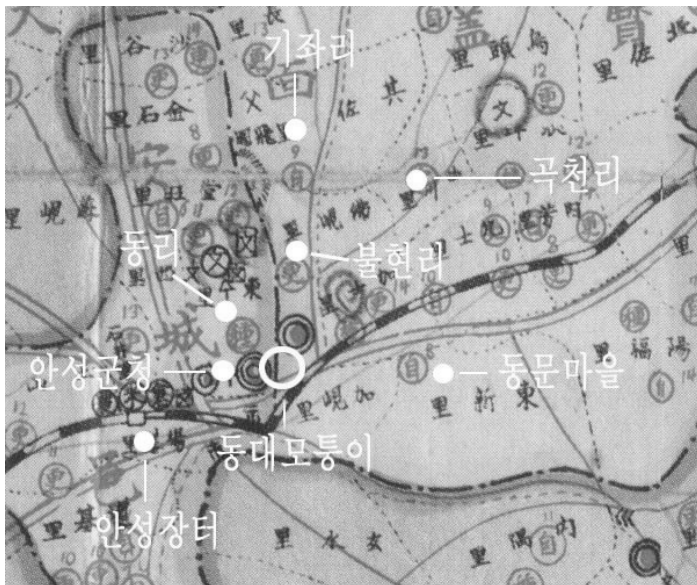
이 네 마을과 동리 사이에 안성의 진산 비봉산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 남단이 안성의 동문 역할을 한 동대(東堡, 지도의 흰색 원)다. 확실한 근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조선시대부터 이곳 동대에 인접한 외촌지역, 즉 지도에 보이는 가사리·가현리·동신리는 물론 기좌리 일대까지를

23) 서구의 지적측량술이 도입되어 근대적 행정구역이 구획되기 이전 시기에는 방면·방리의 위치를 나타내고자 할 때, 가령 ‘自官門東十里’ 하는 식으로 개략적인 방위와 거리를 표시했다.

24) 1935년 4월 개교한 寶蓋公立普通學校(현 보개초등학교)를 말한다.

25) 현재의 안성 1·2·3동에 해당하는 안성 읍치는 1931년에 안성면으로 개칭되었고, 다시 1937년 7월 1일자로 읍으로 승격되었다.

26) 조선경남철도주식회사가 1925-1927년에 부설한 사설철도로, 천안에서 안성을 거쳐 죽산과 장호원까지 이어졌다. 1946년 국유철도로 편입되었으나 수익성 악화로 1985년에 여객영업이 중단되고, 1989년에는 전 구간이 폐선되었다.



도6-일제강점기 안성의 행정지도

싸잡아 동문²⁷⁾ 밖 인접지역을 의미하는 ‘동문이(東門-)’라고 했다가, 나중에 —아마도 1910년대 초반 근대적 행정구역이 확정될 무렵— 방외(方外)의 촌락들이 차츰 분화·정비되면서 동신리에 속한 취락인 지금의 동문마을만 한정해 ‘동문리’라고 지칭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안성의 초기 방각본들 간기에 보이는 ‘동문’이 비봉산 남쪽 끝자락에서 안성시내와 시내 외곽지역의 경계를 이루는 ‘동대모퉁이(東垓隅)’²⁸⁾ 너머 안성 읍치의 동북에 해당하는 지역²⁸⁾을 에두르게 통칭해서 부른 이름이었을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동문’이 물리적으로 특정 마을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안성의 동문밖 지역을 에두르게 통칭한 지명이었다고 한다면, ‘안성동문이신판’은 ‘동문마을에서 찍은 책’이 아니라, ‘안성 동문 밖에 소재한 방각소에서

27) 과거 안성 읍치는 읍성을 설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동문도 존재하지 않았다. 東垓는 지금의 봉산교차로 인근, 안성시청과 影鳳川(안성천의 옛 이름) 사이에 자리한 비봉산 남단의 작은 봉우리를 일컫는다. 동대모퉁이(東垓隅)와 안성천이 자연의 장벽을 이루고 원삼과 죽산으로 통하는 325번 지방도로 및 38번 국도로 이어지는 통로로 기능하는 지형과 입지의 특징으로 인해 이곳은 과거 안성으로 들고 안성 밖으로 나는 가상의 동문 역할을 수행했고, 따라서 안성의 읍치와 외촌을 구분하는 경계를 이루었다.

28) 과거 加土面, 其佐面, 居谷面에 속했던 자연촌락들을 품고 있는 사급들(賜給坪)의 북쪽 가장자리, 현재의 안성종합버스터미널과 보개면사무소 일대를 말한다.

찍은 책'이 된다. 이 경우, 기좌리-‘안성동문이신관’-박성철 이 삼자의 상관관계를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관점이 확보된다. 아울러 동문이방각소의 위치를 재검토하면, 아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1960년대 김동욱이 안성에서 현지조사하면서 채록한 마을주민(김상옥)의 증언도 다른 각도에서 고찰하고 안성판방각본 초기 인출 상황을 사실에 입각하여 재구성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이런 추론을 내놓는 필자에게는 이를 방증할 측면이 한 가지 더 있다. 지역사 기록자인 김태영(金台榮, 1895-1978)이 1925년에 집필한 『안성기략(安城記略)』은 편찬의 기본적 접근방식이 안성지역의 종합적 인문지리지, 곧 군지를 지향했다.²⁹⁾ 그래서 안성지역에서 취합할 수 있는 전대와 당대의 지역정보 일체를 수록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도처에 묻어날 뿐 아니라, 저자 특유의 치밀한 기록정신이 돋보이는 책이다.

조선 후기 편사된 읍지류와는 확연히 다른, 근대적 의식과 편찬 의도가 엿보이는 이 책 서문들의 내용을 보면³⁰⁾ 저자가 관내 각 지역을 현장 탐방하여 증언을 취록하고, 여러 마을을 방문해 자료를 수집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지역문화 전통과 관련한 지역민의 증언은 물론이고, 당시 접근 가능한 사료와 문헌을 그가 집중적으로 수집·정리했음을 의미한다. 이 책에는 소략하나마 안성의 방각본 인출과 관련한 내용도 언급되어 있다.³¹⁾ 이창헌의 견해를 좇아³²⁾ ‘안성동문이신관’이

29) 김태영은 20세기 전반기 안성의 지역사 연구, 사회문화 운동, 인쇄출판, 언론·교육 영역에서 두드러진 족적을 남겼다. 본디 경북 청도 태생으로, 경성의 보성중학을 졸업하고 “己未年(1919) 봄 우연한 인연으로 몸을 白城(안성의 옛 이름-인용자) 一隅에 留하게” 된 외지인이다. 안성에 정착한 이듬해인 1920년 4월 1일 《동아일보》가 창간된 직후 그는 안성분국의 기자로 근무했고, 그해 12월에는 분국장이 되었다. 안성분국은 1923년 8월 28일 지국으로 승격되었는데, 지국장은 역시 김태영이 맡았다. 지국장을 하면서 그는 당시 안성군 읍내면(읍장 박승륙)의 요청으로 부록을 포함해 총 230여 쪽에 달하는 분량의 『安城記略』을 집필하여 신식활판으로 간행한 바 있다. 이는 치밀한 기록정신이 돋보이는 독보적인 근대의 인문지리지로 안성지역사 연구에 값진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당시의 지식인들이 하찮게 여겼을 종이의 생산이나 인쇄출판과 관련해 이 정도나마 기록을 남긴 것은 ‘출판인’ 김태영이었기에 가능한 일로, 그는 인쇄출판과 그 토대를 이루는 종이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 남다른 안목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기록을 보면 지역의 역사문화 전통을 서술하는 데 행정 영역이나 유력자 중심의 서술 일색을 벗어나 사회문화적 동력의 변이에 착안하고자 노력했던 점이 눈에 띈다.

30) 가령 당시 읍내면장이었던 朴承六(1858-1934)이 쓴 『安城記略』 「序」에 보이듯이, “以 靑年銳氣奮發 於此忘寢廢餐 惑於古蹟搜之 惑於野老問之……”와 같은 구절이 그러하다.

31) 간결한 내용이지만, 보개면의 목관인쇄에 관한 김태영의 기록은 과거 안성의 방각 상황에 대한 최초의 기록인 동시에, 1960년대 말 김동욱이 안성판본들을 학계에 보고

본격적으로 유통된 시점이 대체로 조선 말기인 1880-1890년 어름이었다고 한다면, 김태영이 처음으로 안성의 목판인쇄를 언급한 시점과는 불과 1세대 남짓의 시차가 있을 뿐이다. 지금으로부터 따져도 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4기 남짓한,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동문이방각소’가 현재의 동문마을에 설치되었다는 근거는 ‘안성 동문이신판’이라는 간기 기록에 보이는 ‘동문’이라는 표기 외에는 전무하다.

김태영이 『안성기략』을 쓸 무렵에는 동문이방각소에서 ‘안성동문이신판’을 찍어냈던 발행자·각수·인쇄자·허드레꾼 중 일부, 또는 그 자손이나 몇십 년 이래의 동네 내역을 잘 알고 있는 동문마을 사람들 중 상당수는 생존해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상정한 것처럼, 조선 말기 또는 광무 연간에 동문마을에서 동문이신판을 간인한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는 김태영이 불과 20-40여 년 전에 이루어진 동문마을의 목판인쇄 전통을 포착하지 못했을 리 없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기략』은 물론이고, 1925년을 전후해 그가 쓴 글들³³⁾은 한결같이 ‘기좌리에서 목판인쇄가 성행해 고본 『춘향전』 등을 찍어냈고 이 책들을 안성장에 내다 팔았다’는 사실은 수차 되풀이했지만, 어디에서도 방각본의 이행과 관련하여 동문마을(동문리)을 언급한 바가 없다. 이 점은 당시 동문마을 사람들을 포함해 안성에 살고 있던

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유일한 기록이기도 하다.

32) 이창현(2000a), 461쪽 이하.

33) 주로 그가 재직했던 《동아일보》 지면에 (르포)기사 형태로 게재된 것들로, 안성지역의 한지제조·역서인쇄·방각본 생산과 관련된 기사는 다음과 같다. 「有望한 安城紙」(1923년 2월 12일자); 「曆書紙로 賞用된 安城郡의 朝鮮紙」(1929년 7월 4일자, 7월 6일자); 「馬糞紙 相當히 將來有望」(1931년 2월 11일자); 「馬糞紙 生産地 ‘적재울’ 가 보고」(1931년 5월 12일자-예외적으로 최영수 기자가 실명으로 작성); 「安城白紙生産」(1938년 4월 12일자); 「自古로 商業의 中心·安城 八道物貨의 集散地」(1940년 6월 25일자). 이것들은 대부분 필자의 실명 없이 기자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에 ‘안성(일기자)’만 표시되어 있으나 당시 그가 《동아일보》 안성지국장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가 썼거나 그의 지시하에 작성된 후 그의 교감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 김태영의 보고로 간주하기로 한다. 이 밖에도 김태영이 1956-1958년경 집필한 유고 필사본 「秋水 金台榮 述 安城文化今昔觀」에도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安城記略』과 함께 이 글들이 근대 안성지역의 출판문화사를 포함한 지역사 연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는 까닭은, 전근대 전통의 마지막 지지인 『安城郡邑誌』(1899)의 편사 이래 1981년 안성군에서 『안성의 맥: 내고장 전통가꾸기』를 발간하기까지 근 1세기 동안 전국이나 광역을 대상으로 한 행정자료집 외에는 지역에 착근한 자료가 전무한 실정에서 사실상 그의 글들이 근대 안성지역의 다양한 면모를 헤아려 살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참조자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중 누구도 김태영에게 ‘동문마을에서도 이야기책들을 찍은 적이 있다’는 증언을 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안성판방각본에 관해 그가 최초로 기록을 남길 즈음인 1920년대 중반에 김태영은 ‘고본 춘향전’ 등 ‘안성동문이신판’을 직접 보기도 했다. 즉, 그는 1956-1958년경 집필한 미간행 수고에서 “지금부터 30여 년 전까지도 안성시장에는 기좌리판 고본 춘향전 등 소설책들³⁴⁾이 판매되고 있었다”³⁵⁾고 했는데 이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본을 그가 명시적으로 되풀이하여 “기좌리 판”이라고 말한 반면, 그의 글 어디에서도 방각본 인출과 관련하여 동문마을 또는 동문리 판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동문마을에서의 방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³⁶⁾

IV. “東門里 朴星七書店의 朴星七” 증언 검토

당대의 지역사 기록자인 김태영이 동문마을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동문마을에서 방각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말한 사정들을 되짚어보면 ‘안성동문이신판’을 찍어낸 마을이 동문마을이 아니라 기좌리 또는 그 인근이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34) 물론 이 책들은 1917년의 박성칠서점에서 발행한 판본들이었을 것이다. 『춘향전』의 경우가 그러하듯, 박성칠서점의 고소설 판본들은 상당수가 ‘안성동문이신판’ 판목을 이용하여 印行했기 때문에 이 간기가 그대로 새겨져 있다. 이것이 동문마을에서 찍은 게 맞다면 간기의 내용과 당시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김태영이 알게 되었을 것이고, 당연히 그의 기록 어딘가에는 ‘과거 동문마을에서 목판인쇄가 행해졌다’는 진술이 포함되었을 법하나, 그의 글 어디에도 목판인쇄와 관련하여 동문마을을 언급하지 않았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5) 『秋水 金台榮 述 安城文化今昔觀』, ‘印刷와 出版.’

36) 김태영이 전문 연구자는 아니었다고 해도, 1910년대에 보성중학에서 서구식 근대교육을 받았고 언론과 교육 영역에서의 활동으로 인해 개화기 지식인으로서의 문화적 감각과 소양도 일정 수준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리고 출판업에 직접 종사하기도 했던 그가 당시 간기의 ‘동문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초반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 10여 회에 걸쳐 안성지역에서의 종이 생산 및 방각활동과 관련한 글을 쓰면서 안성지역에서 생산한 방각본들이 ‘기좌리 판’임을 일관되게 적시한 반면, 어디서도 ‘東門里’를 언급하지 않은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더불어 검토해야 할 문제가 한 가지 더 남아 있다. 20세기 초반 안성의 방각본 출판인들의 행적과 방각 상황을 어렵듯이 헤아려볼 수 있는³⁷⁾ 김동옥의 글에 보이는 불현리 주민 김상옥(1916-1978)³⁸⁾의 1968년 증언이 그것이다.

먼저, 김동옥이 남긴 원문을 보자.³⁹⁾

筆者가 坊刻本 蒐集次 安城 金相玉氏 宅에 들렀을 때의 證言.

「그때 六·二五 前에 先生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그것을 부탁하였을 때, 뒤에 冊塵⁴⁰⁾의 姜氏에게 들은 이야긴데, 姜氏가 春香傳을 사가지고 별전에 퍼놓았는데 一年半이나 아무도 펴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馬西(sic)國民學校 校長先生님이 와서 팔라고 해서 거저 주다시피 二三十원에 팔았습니다. 그 뒤는 전혀 이것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東門里 朴星七書店의 朴星七 씨는 죽고, 그 孫자가 지금은 軍隊에 가 있는데, 그 板木은 벌써 진창에 깔기도 하고 꽤 때기도 해서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

이것이 방각본의 말로였다…….⁴¹⁾ (강조점—인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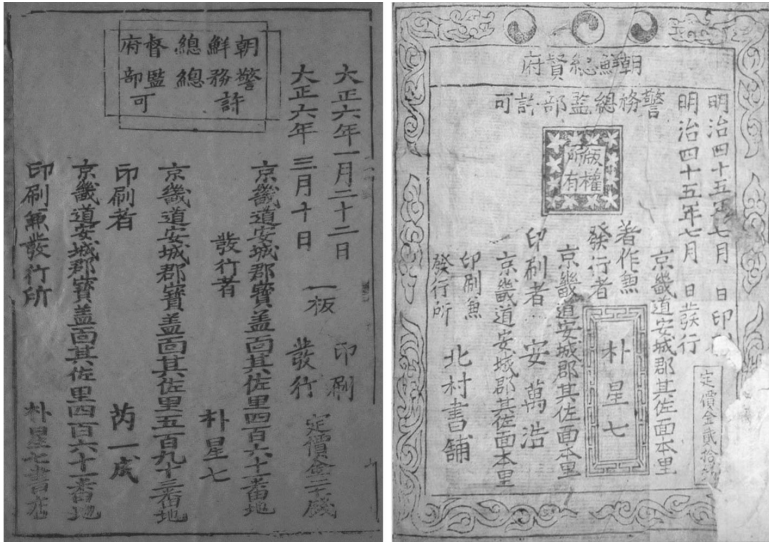
37) 김동옥의 말대로 당시에는 이미 방각본이 종말을 고한 시점이긴 하나, 한국전쟁으로 인한 대대적인 파괴와 그에 뒤이어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거친 서울보다 당시의 안성지역에 방각본을 인출했던 전대의 상황을 고찰하기에 유용한 더 많은 원형과 잔상이 남아 있었을 게 분명하다.

38) 김상옥은 보게면 불현리 본토박이로 지장(紙匠) 겸 고서매매상이었다. 그의 장남으로 지금도 불현리에 살고 있는 金明煥(1941-?)의 말로는 자신도 부친과 함께 이곳에서 1970년 무렵까지 마분지와 백지(창호지)를 제지했다고 한다. 고급지에 속한 백지는 전라도 임실·남원·전주 등지에서 공급받은 닥피(楮皮)를 사용했지만 저급지인 마분지의 경우는 장사꾼들이 수집해온 고서들 가운데서 상태가 좋고 쓸 만한 책들은 추려낸 후 고서수집가에게 넘기고, 나머지 험한 것들은 절구에 빻은 후 이를 다른 폐지나 짚 등과 섞어서 지료(紙料)를 준비한 후 불현리 뒷산에 맑은 샘물이 고이는 곳에 옴막을 치고 종이를 뿔었다고 한다. 그러나 1941년생인 김명환은 안성의 방각본 인쇄 사실은 경험한 바가 없고, 따라서 아는 바도 없다고 했다(2013년 3월 증언).

39) 과거의 기록은 안성지역에서 이루어진 초기의 방각 상황을 이해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동시에, 기초정보에 대한 기록이나 해석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엉뚱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안성판방각본 연구 초창기의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40) 여기서 말하는 책전이 간소(刊所)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전대에 제작된 방각본들이나 그 밖에 서책을 유통·판매했던 사가(私家)를 지칭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볼 수 있다. 어쨌든 과거 한지와 방각본을 생산했던 기차리·불현리에서 1950년 무렵까지도 전통적인 책전이 운영되었다는 점은 안성지역사의 관점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41) 김동옥(1970), 115-116쪽.



도7, 도8-박성칠이 발행자로 표시된 북촌서포(오른쪽)와 박성칠서점(왼쪽)의 판권지
 ※ 박성칠과 방각소의 주소지가 각각 동일지명인 “京畿道 安城郡 其佐面 本里”, “京畿道 安城郡 實蓋面 其佐里 461番地”로 적혀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東門里 朴星七書店의 朴星七’이라는 표현이다. 김상옥의 증언과 김동욱의 채록이 정확하다는 점을 전제할 때⁴²⁾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점이 딜레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비추면 ‘東門里 朴星七書店’과 (판권지상 기좌리에 주소지를 둔) ‘朴星七書店의 朴星七’은 양립할 수 없다. 알려진 바와 같이, 박성칠은 기좌리 태생이고⁴³⁾, 도7, 도8에서 보듯 그가 발행인이었던 북촌서포와 박성칠서점의 판권지에 이 2개의 방각소와 박성칠의 주소지가 모두

42) 전후관계로 보아 “馬西國民學校”는 안성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한국전쟁 무렵은 물론이고 그 이전과 이후에도 안성지역에 馬西國民學校라는 교명을 사용한 학교는 없다. 이 국민학교가 당시 안성에 있던 학교를 지칭한 것이었다면, 이는 보개면과 경계를 맞댄 삼죽면 마전리 소재의 마전초등학교(麻/馬田初等學校)의 오기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아래에 이어지는 인용문에서 이 교장으로부터 ‘한국전쟁 전에 춘향전을 되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춘향전』을 팔고 산 시점이 1950년 6월 이전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마전초등학교는 개교시점이 1956년이라는 점에서 모순된다. 물론 증언자인 김상옥이 구술시점(1968) 당시의 직함을 말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모순은 해결된다. 어쨌든 馬西가 馬田의 오기라면 활자화 과정에서 오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마전’은 麻田을 쓰기도 하고 고려 말 이곳에 설치되었던 馬田部曲에서 유래한 지명을 살려 馬田을 쓰기도 한다.

43) 최호석이 발굴 소개한 박성칠의 재적등본에서도, 그가 1922년 사망하자 그의 아들이 호주를 상속하는데 주소지에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아 박성칠이 기좌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할 듯하다.

동일한 마을을 지칭하는 ‘기좌면 본리’ 또는 ‘보개면 기좌리’⁴⁴⁾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김상옥의 증언이 ‘東門里 朴星七書店’이라 했기 때문에 이를 액면 그대로 새기면, 박성칠서점은 기좌리가 아니라 동문리에 소재했던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東門里 朴星七書店’이라 한 이 진술은 판권지를 통해 드러난 사실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박성칠이 저작자 겸 발행자로 참여한 박성칠서점에서 방각한 판본 12종(표4)의 판권지에 박성칠의 주소는 물론이고 발행소의 소재지도 예외 없이 ‘보개면 기좌리 461번지’로 표기되어 있는바(도7), 이 소재지 표기가 실제와 달랐다고 볼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상옥의 이 증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김상옥이 말한 ‘東門里’가 기실은 기좌리에서 찍은 ‘동문이 신판’을 의미했을 가능성이다. 이 경우 김상옥은, 박성칠이 ‘안성동문이신판’을 찍어낸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⁴⁵⁾ “동문이신판을 간행했던 朴星七書店의 朴星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김상옥이 말한 ‘東門里’가 동문마을이 아니라 ‘동문이신판’의 ‘동문’을 의미했을 가능성이나, 앞서 필자가 제기한 바와 같이 안성시내의 동북지역을 싸잡아 ‘동문’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있음을 받아들이면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대목이다.

둘째, 김상옥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교류하였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⁴⁶⁾ 김동옥으로부터 얻은 학습효과의 가능성이다. 김상옥은 기좌리에 박성칠서점이 설립되기 직전인 1916년 태생이다. 박성칠은 북촌서포를 개점한 1912년부터 그가 사망한 해인 1922년까지 기좌리에서 방각본

44) 其佐面 本里는 1914년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보개면 기좌리로 이름이 바뀐 동일 마을을 이른다.

45) 필자는 그의 구술이 박성칠의 방각활동과 그 결과물의 실상을 상당 부분 파악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그가 여느 촌부와 달리 다소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고서매매상이었고, 김동옥 등과 한국전쟁 이전부터 오랜 기간 접촉·교류하면서 김동옥이 연구하는 서지의 실체가 어떠한 것인지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의 진술이 당대의 사실을 실상 그대로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했다.

46) 김명환의 말로는 당시 부친이 고서를 수집해서 모아두면 대학에 적을 둔 연구자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사 갔다고 했는데, 책을 사 간 사람은 아마도 김동옥 선생 같은 분들이었을 것이다. 김동옥의 글도 그가 한국전쟁 이전부터 고서(방각본) 수집자 기좌리 불현리를 찾았고, 그로 인해 김상옥과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을 간행하여 팔아왔기 때문에 인접한 이웃마을의 김상옥에게는 박성철이 ‘기좌리 사람’으로 인식·각인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박성철이 만일 동문마을에 거주했거나 그곳에서 방각본을 간인했다고 한다면 그 시기를 조선 말기에서 출판법이 발효된 1909년 이전 어느 시점으로 봐야 할 터인데, 설사 박성철이 그러했다고 할지라도 김상옥 자신이 직접 체험하지 않은 — 그가 직접 체험한 것은 비록 유·소년 시절이긴 하나 박성철이 인근인 기좌리에서 방각활동을 한 일이다 — 박성철의 행적을 바탕으로 박성철을 ‘동문마을 사람’으로 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김상옥의 “東門里”가 실제로 동문마을을 의미한 것이었다면, 김동옥이 수차 박성철의 방각본이 ‘東門里(신)版’이라고 말했을 것이므로 김동옥으로부터 얻은 학습효과 때문에 김상옥도 “東門里(新版的) 朴星七書店……”이라고 표현했을 수 있다고 본다.

김동옥의 기록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이 馬西國民學校 校長先生에게 팔린 안성판 춘향전은 六·二五前에 金三不과 安文求가 같이 寓居에 들러 安城에 坊刻本 蒐集次 가서 되사갔고, 朴星七 孫子是 東門里에서 20里 밖으로 移徙를 가서 筆者도 몇 번 現地 踏査를 하였으나 板木 기타 찾을 길이 없었다.⁴⁷⁾

일부 연구자들은 박성철의 손자가 동문리에서 20리 밖으로 이사했다 (아마도 김상옥의 증언으로 보인다)는 기록을 들어, 박성철이 동문마을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다거나⁴⁸⁾, 그가 동문마을에서 (동문리)방각소를 운영하다가 출판법이 발효된 1909년 이전 기좌리로 이주하여 기좌리에서 북촌서포와 박성철서점을 개설하게 되었다⁴⁹⁾고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추정은 과연 실제적 사실에 부합한 것일까? 박성철이 동문마을에서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방각활동을 수행하다 기좌리로 이주했다는 추단에는 수궁하기 어려운 측면이 한둘이 아니다. 김동옥은 안성판본의 판권자를 통해 주소지가 모두 기좌리로 표시된 북촌서포와 박성철서점에서 고전소설을 방각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기좌리라는 지명에 익숙해

47) 김동옥(1970), 116쪽.

48) 이정원(2005), 172쪽.

49) 이창현(2000b), 470쪽.

있었을 게 분명하다. 그래서 기좌리에 이르는 길목에 자리한 불현리의 김상옥을 만났고, 북촌서포와 박성칠서점의 판목과 판본의 흔적을 찾아 당연히 기좌리도 방문했을 것이다.

비봉산 동사면의 야트막한 구릉과 옹기종기 터를 잡은 몇 되지 않는 밭뚝이를 끼고 불과 700m의 거리를 사이에 두고 있는 까닭에 기좌리와는 한 마을이나 다름없는 불현리의 김상옥(그가 증언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주민)도 박성칠의 손자가 동문마을에서 기좌리로 이사했다면 왜 기좌리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실제 거리(3-4km)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20리 밖”(약 8km)이란 표현을 썼을까? 이를 이창현과 이정원이 이해한 방식으로 읽으면, 본디 기좌리 태생이지만 동문마을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방각 활동을 수행하던 박성칠이 1912년 이전 기좌리로 주소지를 다시 옮겨 북촌서포(1912)와 박성칠서점(1917)을 설립하여 방각활동을 수행하다 1922년에 기좌리에서 사망하고, 그 후손은 다시 기좌리에서 동문마을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살다가 김동옥이 불현리를 찾은 1960년대 말경 또다시 기좌리로 이사했다는 것인데,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위의 인용문이 실제로 (동문마을에서 살던 손자가) 동문마을에서 기좌리로 이사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라고 한다면, 기좌리라는 마을에 익숙한 두 사람이 “동문리에서 20리 밖으로 이사를 가서”라고 말하기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동문리에서) 기좌리로 이사 왔다’고 증언하고 기록하는 것이 어느 모로 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⁵⁰⁾ 당시 대화를 주고받은 상황을 곱씹어보면, 동문리는 물론이고 기좌리라는 마을의 위치와 성격 등속을 훤히 꿰고 있었을 김상옥과 김동옥이 실제 거리와 크게 차이가 있는 “20리”라는 표현을 써서 이사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모호하게 말하거나 기록했을 까닭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면 위 인용문은 박성칠이 평생 동안 방각활동을 수행했던 기좌리에서 사망한(1922) 후, 그의 아들과 손자도 그대로 기좌리에서 살아오다가 손자가 군복무를 마친 후(1969년 무렵) ‘기좌리에서 20리 떨어진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⁵¹⁾고 새기는 것이 더 이치에 합당하고

50) 위의 인용문에서 기록자인 김동옥이 시점을 불현리에 두고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박성칠 손자가 [...] 20리 밖으로 이사를 갔다”는 사실을 전한 김상옥(또는 인근주민)을 따라 김동옥도 위의 증언을 기록하면서 시점의 지향을 동문마을에 두었다기보다 기좌리와 인접한 불현리에 두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박성칠의 손자가 동문마을에서 기좌리로 이주했다면, ‘이사를 갔다’고 하기보다는 ‘이사를 왔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다.

실체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김동욱의 기록에 보이는 ‘東門里’(동문리)를 위에서 필자가 말했듯이, 기좌리를 포함하여 과거 안성읍치의 동북에 위치한 지역을 애두르게 지칭했을 가능성을 여기서 다시 주목해보자. 이처럼 김동욱의 기록에 나오는 ‘東門里’를 ‘동문이’(동문마을이 아닌 기좌리)로 치환하여 새기면, 김동욱의 글과 김상옥의 진술에서 보이는 모든 의문과 논리적 모순이 말끔히 해소된다. 다시 말해, “[안성]東門이[신판을 간행했던 朴星七書店의 朴星七 씨는 죽고 [...] 박성칠 손자는 東門이에서(즉, 박성칠서점이 있던 기좌리에서) 20리 밖으로 이사를 가서……”라고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다.

V. 동문마을 방각활동 기록·증언의 부재 문제

동문이방각소의 동문마을 설치설이 의문스러운 또 다른 이유도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판권지를 통해 볼 때 기좌리 이외의 마을에서 운영되었던 방각소는 본적지가 곡천리인 장이만(張二萬, 1888-1929)이 곡천리에 설치했던 신안서림이 유일하다. 곡천리는 안성판방각본을 찍어낸 대부분의 방각소들이 위치했던 기좌리와는 실개천이나 다름없는 고부내(曲川)를 사이에 두고 채 1km도 안 되는 지근거리에 입지한 탓에 과거 기좌리·불현리와 함께 기좌면(其佐面)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면(坊面)을 이루었으며, 이 두 마을이 그러했듯이 곡천리 또한 한때 한지를 초지하기도 했다. 이는 기좌리 불현리 곡천리가 그만큼 지리적·문화적·전통적으로 동질성과 공유점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문마을은 기좌리에서 3-4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한지를 생산한 마을도 아니다. 인쇄출판 활동의 토대를 이룬 제지업과도 무관한 동네라는 것이다.

이에 덧붙이면, 안성의 방각본 출판인들의 인적을 제적등본 열람을

51) 참고로 말하면, 박성칠이 타계한 해(1922)에 동문마을에서 태어나 92년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왔고 필자가 2002년부터 최근까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 金承煥 웅(그가 현재 이 마을에서 최고령이다)에게 1960년대 말 무렵 동문마을에서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한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물었지만 “기억에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김 웅은 일제강점기에 기좌리 불현리의 지소로부터 사들인 한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투전의 제작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지만, 동문마을에서의 책의 간행 사실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수차 증언한 바 있다.

통해 추적한 최호석·이정원 등의 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촌서포 이래 활동한 안성의 7개 방각소에서 발행자 및 각수로 참여한 방각인들의 본적이나 주소지가 신안서림⁵²⁾의 장이만을 예외로 하면 하나같이 기좌리 일 뿐 동문마을을 찾아볼 수 없다(즉, 기좌리와 달리 동문마을에는 방각의 후예가 없다)는 점도 동문이방각소의 기좌리 설치 가능성을 고려함에 흥미할 필요가 있다. 말을 바꾸면, 기좌리에서는 조선 중후기의 역서 인쇄로부터 출발한 방각활동을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 초기의 박성철 등을 거쳐, 경쟁력 상실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방각활동의 맥이 끊기기 직전인 일제강점기 후기(1934)의 박용준(朴容濬, ?-1950)과 그의 형제들까지 대를 이어 부단하게 마을의 전통으로 이어간 반면, 동문마을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떤 문화적 전통이 어느 날 갑자기 까닭 없이 생겨나는 경우는 상상하기 힘들다. 마찬가지로 필연적인 내적·외적 동인의 개입 없이 이 전통이 하루아침에 홀연히 스러지는 경우도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 전통을 이어가는 행위가 이와 관련된 개인이나 마을 공동체의 경제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면 더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기좌리에서 인쇄출판 전통이 태동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출용지인 종이의 대량 생산이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동문마을에서는 한지를 생산했다는 전언이나 기록이 전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80년을 전후한 어느 시점에 동문마을에서 전무후무하게 최소 8종의 방각본을 일회적으로 찍어낸 후, 이 마을에서 누구도 판각·인쇄 활동을 지속하지 않은 채 방각의 전통이 어느 날 갑자기 단절되었다고 보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일이다.

동문마을에서 동문리판 방각본들을 찍어낸 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한다면, 기좌리가 그랬던 것처럼 대한제국기나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어서도 이문을 얻기 위해 그 후예들이 방각활동을 지속했을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지는 시기에 이 마을에서 방각활동을 수행한 흔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만일 선행연구자들이 추정한 것처럼 동문이방각소가 동문마을에 설치되었다고 한다면, 이 마을의 후손들 중 누군가는 노도와 같이 밀려들었던 신문물과 함께

52) 신안서림의 경우도 방각소의 소재지만 곡천리 235번지일 뿐 발행자인 장이만의 주소지는 경성부 건지동 80번지, 인쇄자인 이명수는 기좌리 515번지다.

도입된 활판인쇄술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속절없이 사양길로 접어든 일제강점기 중반 이전 무렵까지는 방각을 생업으로 이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안성의 방각인(坊刻人)들 가운데는 동문마을 출신이 단 한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⁵³⁾, 동문마을에서 찍은 판본도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 또한 ‘안성동문이신평’을 방각한 마을이 동문마을이 아니라 기좌리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배경이다.

안성의 방각소들은 대부분 같은 시기에 일시적으로 판각하고 동시에 인출하는 방식으로 방각활동을 수행했다.⁵⁴⁾ 현전하는 판본들로 판단하건대, ‘안성동문이신평’도 특정 해에 일시적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생산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면 동문마을에서는 1880년 무렵 어느 시점에 일회적으로 8종의 방각본을 박아낸 이후로는 일체 방각활동을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동문마을은 조선 후기 이래 투전(鬪賤)의 산지로 명성을 떨쳤다. 잘 알다시피 도박 도구의 일종인 투전은 사회적 폐해가 심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이래 지속적으로 찰(札)의 생산과 판매를 통제하고 투전 놀음을 단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투전 찰의 생산을 통해 벌어들인 동문마을의 소득액수가 지역사료에 통제로 나와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⁵⁵⁾ 상당액에 달하며, 1925년 이후 일제강점기 후기까지 동문마을에서는 투전 찰의 생산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이는 어떤 전통의 존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수요와 이문이라는 사실을 웅변으로 말해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조선 후기-일제강점기 초기의 시점에 안성과 같은 지역에서는 신식인쇄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⁵⁶⁾는 점을 고려하면 일회적으로 최소 8종의 고소설을 발행한 후 스스로 전통의 맥을 끊고 개판에 참여한 방각인들이 허궁허궁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수긍하기 어려운 일임이 분명하다. 동문이방각소 이후에도 기좌리에서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1934년까지 최소한 7개의 방각소가 지속적으로 방각업을 이어간 것을 볼 때 일제강점기 초·중반까지는 방각활동의

53) 안성의 방각본 출판인들의 출생지 및 인적에 대해서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5); 『안성시지』(2012), 651쪽 참조.

54) 김한영(2013c), 213-214쪽 참조.

55) 김태영(1925), 155-156쪽.

56) 안성에 신식활판술이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21년이고 본격적으로 신식판본을 찍어내기 시작한 것은 1924년 5월에 박승룡이 동아인쇄소를 설립한 이래의 일이다. 안성지역의 근대 신식인쇄 출판에 관해서는 김한영(2013c), 130-144쪽을 참조하라.

아에서 편사한 『안성군읍지(安城郡邑誌)』에서도 이 마을을 품은 동신곡리(東新谷里)가 거곡면에 속했던 점으로 볼 때⁵⁹⁾ 이 자료집은 조선 후기, 다시 말해 1880년대로 추정되는 ‘안성동문이신관’ 개관 당시의 지역 사정을 상당 부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914년 지방 행정조직의 대대적 개편을 통해 보개면으로 통합되기 이전에 생산된 이 자료집에서 당시 기좌면(其佐面)의 기좌리·곡천리와 거곡면(居谷面)에 속한 동문마을은 서로 다른 방면(坊面)으로 나타난다. 도9에는 당시 거곡면에 속한 각 평(坪)·동(洞)·리(里)·촌(村)·주막(酒幕)·보(湫)의 이름을 한자로 나타낸 후 당시 시점에 일상적으로 통용되었던 토속명이나 한자 지명에 해당하는 한글 표기가 추가되어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언문(諺文)’ 항에 수록된 지명의 한글 표기다. 거곡면의 마을들에는 ‘안성동문이’처럼 고유명사에 덧붙은 형태소⁶⁰⁾인 ‘이’가 마을 지명의 한글 이름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명(里名) 촌명(村名) 항의 삼강리(三綱里) → 살강이, 평촌(坪村) → 고장척이, 양협리(陽峽里) → 양협이, 신기리(新基里) → 송등이⁶¹⁾ 등이 그것이다. 이로 미루어보면 당시 거곡면의 마을들을 일컫는 ‘-리/村’의 상당수가 표기할 때는 한자로 ‘-리/村’이라고 한 반면, 일상생활에서는 이를 입말로 ‘-이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⁶²⁾ 반면 동문리(東門里)⁶³⁾에는 한글 표기가 보이지 않는다. 동문리도 살강이, 고장척이, 양협이, 송등이처럼 당시에

축으로 하여 남북 1~2km 이내에 형성된 마을들을 일컫었다.

59) 그러나 1871년과 1911년 사이의 시기에 작성된 『安城郡邑誌』(1899)에서는 기좌면이 통째로 누락되었고 동신리는 물론 동문리라는 마을 이름도 보이지 않는다. 조선 후기의 지방행정구역 명칭이나 편제가 1860년대 이후부터 일제강점기 초기(1914)에 조선 총독부가 전국 부군현의 관할구역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변화를 도모하기 전까지는 비교적 고정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871년 읍지에 보이는 지명과 『朝鮮地誌資料』가 집성된 일제강점기 초기의 지명은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한다.

60) 오늘날 ‘동문이=東門里’로 상정하는 것과 달리, ‘坪村’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가 획일적으로 ‘리’를 대신했거나 ‘리’의 한글 발음으로 항상 ‘이’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61) 이 한글 이름들은 지금까지도 이 지역에서 통용되고 있는 마을 이름들이다.

62) 물론 土甲里後川 → 사갑리뒤늑/馬屯里前川 → 마준리앞늑(‘晚谷面 川名’ 항), 佛峴里 → 붓쳐고기말(‘其佐面 里名’ 항), 北佐面本里 → 뒤재울(‘北佐面 里名’ 항)의 경우처럼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다.

63) 여기에 보이는 東門里가 현재의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동문마을에 해당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동안 안성관방각본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안성동문이신관’이 이 마을에서 방각되었고, 아울러 박성철이 이 마을에서 방각활동을 수행했던 것으로 설명되어왔다.

‘동문’이라고 불렀으나 이 자료의 기록자가 실수로 누락한 것일까?

그러나 ‘주막’ 항을 보면 신기리(新基里) 소재의 신기주막(新基酒幕)은 ‘송등이주막’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반면, 동문리에 있었던 동문리주막(東門里酒幕)은 ‘동문이주막’이라고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볼 때, 필자의 부주의에 의한 결락일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 후기에서 대한제국기를 거치는 동안, 현재의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동문마을의 한자 표기인 ‘동문리(東門里)’를 지칭하기 위해 ‘안성동문이신관’에 보이는 것처럼 언문(한글)으로 ‘동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자료집이 ‘안성동문이신관’을 개관했을 당시 마을 이름 호칭방식의 실상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안성동문이신관’의 ‘동문’이 곧 동문리(東門里)였다고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재고함이 마땅하다.

1911년 조선총독부가 지방행정조직을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조사해 집성한 이 자료집에 따르면, 위에서 필자가 주장한 바와 같이 ‘안성동문이신관’을 적어낸 동문지방각소는 동문마을(東門里)이 아닌 기좌리에 설치되었으며, 따라서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 안성지역의 방각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박성철이 줄곧 기좌리에서 방각본들을 생산했을 뿐 동문마을에서 방각활동을 수행한 적이 없다⁶⁴⁾는 사실을 판단함에 참조할 여지가 있음이 분명하다.

VI. 맺음말

지금까지 고찰한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초창기 안성판방각본 간기에 보이는 ‘동문’은 곧 기좌리이며⁶⁵⁾, 북촌서포와 박성철서점 등

64) 거듭 말하거니와 이 경우 박성철이 사실상 ‘안성동문이신관’의 개관을 주도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장에서 필자가 논증한 관점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다고 하겠다.

65) 앞서 안성지역 방각소들의 상호명에서 마을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상기시킨 바 있다. 이 점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새길 여지도 있다고 본다. 즉, 인구 규모가 크고 마을의 수가 많은 대도회의 경우 여러 마을에 산개한 방각소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방각활동이 이루어진 탓에 방각본을 구입하고자 하는 책패(冊僮)와 같은 서적 보부상들이나 구매수요자들이 마을 이름을 알지 못하면 특정 서책을 막아낸 방각소를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는 대도시에서 마을 이름을 방각소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밖에

기좌리에서 방각한 판본들의 간행에서 저작자 겸 발행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박성철이 ‘안성동문이신판’을 개판하는 데서도 중추적인 위치에 있었을 개연성을 강하게 시사한다.⁶⁶⁾

『제마무전』을 위시한 8종의 ‘안성동문이신판’ 소실류 방각본들을 기좌리와 동문마을 중 어느 마을에서 찍어냈는가는 사실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동문마을에서 방각했건 안 했건 이 판본들이 안성판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창기의 안성판본들을 기좌리에 소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동문 밖 소재의 방각소’에서 찍어냈을 경우, 안성지역의 초기 방각 상황을 고찰하는 데 새롭고 유익한 논점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고증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문이방각소의 설치 위치를 정확히 고증하는 문제는 박성철과 동문이방각소의 관계, 동문이방각소의 설치 위치, 나아가 동문이방각소 설치 이전 시기와 당시 시점, 그리고 그 직후에 안성에서 이루어진 방각 상황을 종합적으로 헤아려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면밀히 되짚어봐야 할 문제임이 분명하다.⁶⁷⁾

없는 불가피한 이유 중 하나였을 것이다. 반면, 안성지역은 사실상 하나의 마을(기좌리)에서 방각활동이 행해졌기 때문에 구태여 방각소명에 마을 이름을 넣어서 구분할 이유가 없었다. 만일 ‘안성동문이신판’이 동문마을에서 판각·인쇄·판매한 것이었다면, 기좌리의 방각인들은 방각소의 이름을 차별화하기 위해서라도 마을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안성지역의 목판인쇄는 기좌리에서만 독점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66) 박성철은 1856년 태생이다. 그의 연배는 지금까지 알려진 안성의 다른 방각인들(대부분 1880-1890년 태생)보다 한 세대 앞선다. 기좌리는 일찍이 한지 생산을 바탕으로 관상감의 역서를 대량으로 인쇄해 전국에 판로를 두고 공급했던 마을이다. 어쩌면 박성철은 윗대부터 대대로 가업으로 역서를 찍어온 집안에서 태어났을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의 박성철은 자신의 집에 즐비한 인쇄도구나 판목들을 보고 자랐을 것이며, 때로 방각본의 인출·제책과 관련한 허드렛일도 도왔을 것이다. 판목을 판각하고 책을 생산하는 일이 그에게 매우 익숙한 환경이었을 것이란 얘기다.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면, 오늘날과 달리 과거에는 일찍부터 가업을 이어 경제활동에 뛰어들었을 것임을 고려할 때 1856년생인 박성철이 20대 중반-30대에 이른 188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방각활동에 종사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필자의 추론처럼 1880년대 들어서 인쇄된 것으로 보이는 ‘안성동문이신판’이 기좌리판이 맞다면 가업으로 이어져온 역서 인출 환경으로 인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방각활동을 시작했을 박성철이 ‘안성동문이신판’의 개판을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67) 이창현은 앞의 글(2000b)에서 박성철이 ‘안성동문이신판’을 개판한 방각소를 운영했다고 보았다. 필자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창현이 그 소재지를 동문마을로 상정하고 따라서 박성철이 한때 동문마을에서 방각활동을 수행했다고 추정한 것과 달리, 필자는 박성철을 평생 기좌리에서 방각활동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정황을 고려한다면 박성철은 동문마을에서 거주한 적이나 방각활동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며, ‘안성동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두루 헤아리면 동문이-북촌-박성질을 분리해 생각할 수 없으며, 동문이방각소-북촌서포-박성칠서점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적·물적·전통적 연속성하에서 설립·운영되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명사인 ‘北村’은 역시 일반명사로 사용된 ‘동문이’와 동일한 장소를 지칭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이해방식이라 할 것이다. 이 경우 ‘北村’은 곧 ‘동문이’이며, 이는 다시 필연적으로 ‘기좌리’일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따라서 안성판방각본에 관한 초기 연구자들이 ‘동문이’를 의심의 여지없이 동문마을(동문리)로 예단한 것은 경관을 찍어냈던 서울지역의 방각소들에서 보이는 일반적 상호 명명 방식에 의거한 도식적 접근이 불러온 착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 피력한 동문이방각소 기좌리 설치 가능성에 대해 향후 더 설득력 있고 치밀한 고증을 바탕으로 한 논의가 이루어져, 안성에서의 초기 방각 상황을 체계화·구체화하고 필자의 추론을 가리고 밝히는 한층 진전된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문이신관’을 이행한 곳이 기좌리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光武三年五月日安城郡邑誌』.

『大東地志』.

『同治十年辛未十二月日安城郡邑誌』.

朝鮮總督府, 『朝鮮地誌資料』, 1911.

『輿地圖書』.

『戶口總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세기 말-20세기 초 안성지역의 출판문화 연구(I)」
(학술발표회 발제자료집). 2005. 6. 3, 1-16쪽, 37-52쪽.

김동욱, 「방각본에 대하여」. 『동방학지』 제11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70,
97-139쪽.

_____, 「방각본소설 완판 경관 안성판의 내용비교연구」. 『국어국문학』 제61권,
1973, 86-91쪽.

김태영, 『安城記略』. 안성군읍내면, 1925.

_____, 『金台榮 述 安城文化今昔觀』(cir.1956, 미간행 필사본).

김한영, 『안성판방각본 판본고찰: 조선 후기-일제강점기』. 참빛아카이브, 2012.

_____, 「방각본의 개관 기원으로서의 역서 인출 전통 고찰: 안성판방각본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7권,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a 여름호, 217-246쪽.

_____, 「역서 인출의 전통과 안성판방각본의 개관 기원」(제1회 안성맞춤학술콜로
키움 발제자료집, 2013. 3. 22. 안성시립도서관). 참빛아카이브, 2013b, 15-87
쪽.

_____, 『안성판방각본과 안성의 인쇄출판 전통』. 참빛아카이브 · 한국학술정보 ·
누리미디어 웹DB(www.krpia.co.kr), 2013c, et. al.

부길만, 「안성판 경관 완판 방각본의 비교 연구」. 『출판잡지연구』 제11권, 2003,
72-87쪽.

이정원, 「안성판 방각본 출판 현황」. 『어문연구』 12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161-184쪽.

_____, 「안성판방각본의 소설판본」. 『한국고전연구』 14,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219-244쪽.

이창헌, 『경관방각소설 판본 연구』. 태학사, 2000a.

_____, 「안성지역의 소설 방각활동 연구」. 『국문학연구 2000』, 2000b, 59쪽,
115-161쪽.

_____, 「소설 방각본의 한글 각자체 소고」. 『민족문화』 28, 2005, 225-261쪽.

_____, 「경관방각소설의 간기에 대한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43집, 한국문화회,

2006. 8, 69-106쪽

최호석, 「방각본 출판의 경제성 시론」. 『우리문학연구』 17, 우리문학회, 2004, 361-388쪽.

_____, 「안성 방각본 출판의 전개와 특성」. 『어문논집』 54, 민족어문학회, 2006, 173-197쪽.

_____, 「안성판과 경판의 거리」. 『열상고전연구』 제31집, 열상고전연구회, 2010, 117-142쪽.

_____, 「(안성판) 방각본」. 『안성시지』 vol. 2, 2012, 638-653쪽.

국 문 요 약

근세 안성지역에서 행해진 방각본 간행의 전통은 18세기 중후반 들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안성지방판 역서(曆書) 인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유서 깊은 한지의 산지인 안성 기좌리를 중심으로 활동한 이 지역의 출판인들은 19세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역서를 간인·반행하는 한편, 그 중반 무렵부터는 역서 인출의 경험을 살려 무간기본 고전소설들과 일부 경서(經書: 四書三經)를 박아내 안성장시를 통해 유통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방각본들을 생산·공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전통 출판이 사양길로 접어든 1934년까지 안성지역에서는 160여 년에 걸쳐 최소 9개소 이상의 서사(書肆)가 운영되었다. 이들 방각소에서 한글본 고전소설과 한문본 교육용 학습서 등 총 25여 종 35여 판본을 방각(坊刻)해냈다.

안성판방각본 가운데 그간 주목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방각 주체가 밝혀지지 않은 가칭 안성방각소·동문이방각소와 박성철이 발행자였던 북촌서포·박성철서점에서 간행한 한글본 고소설 판본들이다. 간기나 판권지를 통해 안성판으로 확정된 『춘향전』, 『심청전』, 『홍길동전AB』, 『제마무전』, 『진대방전A』, 『조웅전AB』, 『양풍운전』, 『장풍운전』, 『적성익전』, 『삼국지』, 『임장군전』 외에 전(傳) 안성판으로 알려진 『소대성전』, 『수호지(2권본 / 3권본)』, 『진대방전B』, 『장경전』 등 최대 14종 17판본의 고소설 한글본이 바로 그것이다.

과거 방각본들을 산출한 지역 중 서울, 전주, 안성 이외의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한글 고소설을 인출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안성판 소설 판본들은 고전 문학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가볍지 않다.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소설 판본의 개판이 경판과 완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제삼의 이본은 그 존재만으로도 의미를 담지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안성지역의 방각활동은 우리나라 방각본 인출에서 명실상부하게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런 연유로 인해 고전국문학과 서지·출판학계를 중심으로 상당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원을 밝히는 작업이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방각은 그 속성상 지역에 기반할 수밖에 없고, 어느 지역에서 누구에 의해 판각·인출되었는가를 밝히는 일 또한 중요한 연구 주제임이 분명하다. 이런

측면에서 안성지역의 대표적인 방각인 박성철과 ‘안성동문이신판’을 생산한 ‘동문이방각소’와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안성지역에서의 초창기 방각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유의미한 시사를 던져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 논제에 대한 기존의 입장들을 검토하고 지역사 관련 자료들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다른 시각에서 재조명하여 새로운 해석과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

투고일 2013. 12. 20.

심사일 2014. 2. 5.

게재 확정일 2014. 3. 6.

주제어(keyword) 안성동문이신판(*Anseong-Dongmun-e-Sinpan*: new editions by the Anseong printing house *Dongmun-e*), 박성철(Park, Seong-chil, b.1856, d.1922), 안성판 방각본(*Anseongpan-Banggakbons*: woodblock prints in old Anseong), 고소설판본(block-printed novels), 동문이방각소(the publisher *Dongmun-e*)

Reconsidering Early Stage of Publication of the *Anseongpan-Banggakbon*: Editions of Old Novel by the Publisher *Dongmun-e* Kim, Hahn-young

Banggakbons(坊刻本) are Korean old books for sale, majority of which are made using xylographic procedure and published by private local printing masters without government permission. The tradition of their printing in the region of Anseong, one of their production base, is rooted in making and selling calendars without colophon presumably begun around the mid-18th century.

With printing of calendars and some Confucian classics being continued, publishers and printers in Gijwa-ri, the famous paper-making centre and printing village in Anseong region started carving popular novels with the colophon "*Anseong-Dongmun-e-shinpan*[안성동문이신판]" (literally, new editions by the Anseong printing house *Dongmun-e*) and sold them at nearby local markets. By 1934 when the industry slid into decline the village has run at least 9 printing spots for the past 160 years or so, and has produced more 35 versions with about 25 different woodblocks most of them being old novels in Korean for people in the lower social classes including women or textbooks in Chinese for children and students.

It is those old story books that have drawn attention in early studies. They were originated from the publishers *Anseong*, *Dongmun-e*, *Bukchon*, and *Parkseongchil*, all of which were based on Gijwa-ri in Anseong city. These books are at least 14 versions with 17 different blocks. All of them are Korean popular stories. Among them are *Chunhyang-jeon*(춘향전), *Shimchung-jeon*(심청전), *Hongkildong-jeon*(홍길동전), *Jemamu-jeon*(제마무전), *Jindaebang-jeon*(진대방전), *Jowoong-jeon*(도웅전), *Yangpoongwoon-jeon*(양풍운전), *Jangpoongwoon-jeon*(장풍운전), *Jeokseongui-jeon*(적성의전), *Samkugji*(삼국지권지습), *Nimjanggun-jeon*(님장군전), etc.

Of several regions publishing *Banggakbons*, there is no other place where printed old novels in Korean with woodblock except Seoul, Jeonju and Anseong. There is no doubt that the first two other regions have taken the lead in publication of novels, but it is worthy of giving attention to existence of different versions — the *Anseongpan-Banggakbons*(安城板坊刻本), i.e., those printed in Anseong region; it is for this reason that researchers take *Anseongpans* as an important part in comparative study over publishing tradition of the Korean *Banggakbon*.

Although several studies have been done on the subject, our knowledge of the beginning of its tradition may be not enough at the present. The thesis aims, therefore, at adding a deeper and more concrete understanding

to it through an annotation and analyzation of some documents and oral statements derived from local history.

With this re-examination to the early stage of printing tradition in the region, the author hopes that his research may give some clues to uncovering the controversial connection between the *Anseong-Dongmun-e-shinpan* and printing career of Park Seongchil(朴星七: 1856-1922), who is the key publisher in the early stage of printing tradition of *Banggakbons* in the region of Anseong.